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u>이용허락규약(Legal Code)</u>을 미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CHOSUN UNIVERSITY 1246 2008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UCI]I804:24011-200000236233



日本語

使役表現의 意味・用法에

關한

硏究

李

世

鎬

CHOSUN UNIVERSITY 1946 2008年 2月

2008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 日本語 使役表現의 意味・用法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李 世 鎬

日本語 使役表現의 意味・用法에 關む 研究

A Study on the Semantic Usages of Causative Construction in Japanese

2008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李 世 鎬

> 日本語 使役表現의 意味・用法에 關む 研究

> > CHOSU

指導教授 丁 意 祥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本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李 世 鎬

李世鎬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朝鮮大學校 教 授 朴 靑 國 印

審查委員 朝鮮大學校 教 授 金 仁 炫 印

審查委員 朝鮮大學校 副教授 丁 意 祥 印

2007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
I. 서론1
1. 연구목적1
2. 연구방법2
Ⅱ. 일본어 사역표현의 특징4
1. 형태적 특징4
2. 구문적 특징6
2.1. 'に' 사역문
2.1.1. 타동사 사역문11
2.1.2. 자동사 사역문12
2.2. '疹' 사역문13
3. 의미적 특징21
Ⅲ. 일본어 사역표현의 하위유형 ····································
1. 의미적 관점에서의 하위유형25
1.1. 강제(지령)25
1.2. 허가·묵인 ···································
1.3. 방임34
1.4. 원인35
1.5. 원인제공36
1.6. 조작
2. 구문적 관점에서의 하위유형40

2.1. 간접사역42
2.2. 직접사역44
Ⅳ. 일본어 사역동사의 성립여부47
1. 사역이 성립되는 동사49
1.1. 자동사 사역49
1.2. 타동사 사역51
2. 사역이 성립되지 않는 동사52
2.1. 자동사 사역52
2.2. 타동사 사역53
V. 결 론 ··································
참고문헌

표 목 차

【丑-1】	'난る·させる'의 활용형4
【丑-2】	타동사 사역문11
【班-3】	자동사 사역문12
【丑-4】	자동사 사역 성립동사49
【丑-5】	타동사 사역 성립동사51
【丑-6】	자동사 사역 불성립동사53
【丑-7】	타동사 사역 불성립동사53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Usages of Causative

Construction in Japanese

Se-ho Lee

Advisor: Prof. Eui-sang Jung,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peculates the general usage of causatives in current Japanese. For examination of meaning and usage of Japanese causatives, it identifies basic characteristics of causatives, that is, characteristics in styles, constructions and semantics.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above, Chapter 3 sub-divides sub-causatives of Japanese through an analysis of examples to discuss similarity and difference among them. Sub-categories of the causatives in a semantic perspective include commanding, the most typical type, permission approval, nonintervention, and reason that have been much examined, admission, negligence, unconscious presentation of reason, manipulation,

unconscious manipulation and presentation of reasons. Of the sub-categories, manipulation and unconscious manipulation, the former is sub-divided into: the motor subjects are non-separated possessions of the causative subject and are unseparable possessions. And for the type whose motor subject is unseparable possessions of the causative subject, the motor subjects are sub-divided into the type whose motor subject indicates bodily parts of the causative subject and the type whose motor subject indicates bodily features generated by causative activities. At the same time sub-dividing causatives in a semantic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constructive difference between causative sentences and basic ones, that is, sub-divides Japanese causatives into direct and indirect causatives. In other words, a commanding causative which is central in frequency is classified into indirect causative due to its constructional feature that a logical term is added. However, the reason causative which is considered as peripheral in frequency is categorized into direct causative because it basically has no added term.

Chapter 4, a central body of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asic verbs can make causative sentences. For Japanese passive which belongs to the voice like causative, as passive sentences can be made with intransitive verbs as well as transitive verbs unlike Korean or English, Japanese passive has higher productivity compared to Korean. However, passive voice is not constructed by all the Japanese verbs, but only by volitional verbs while passive voice is not constructed by non-volitional verbs. This study divides 728 verbs from the Japanese verb usage dictionary into intransitive and transitive verbs and

analyses them in order to identify by what kinds of verbs passive voice can be made and what kinds of verbs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make causative.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at a causative is not made by some of transitive verbs as well as some of the intransitive verbs unlike the passive voice.

CHOSUN UNIVERSITY 1946_{. 서론}

1. 연구목적

사역은 문법 범주인 태(態)의 하위유형이다. 태(態)란 「화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때 발생되는 시점의 교체에 관련된 구문 요소의 이동에 따른 동사의 다양한 형태(어형)변화, 즉 해당사태의 서술에 있어서의 화자의 시점의 교체에 의해 선택되는 동사의 표현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에 있어서 태(態)라고 하는 문법 범주의하위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수동」「사역」「대응을 이루는 자동 및 타동」「가능」「자발」「수수」「원망(たい)」등을 들 수 있으나, 태(態)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수동」과「사역」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가지 유형 중 「수동」전반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그 양이 방대하나 할 수 있으나, 그에 비해「사역」은 부분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사역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어에 있어서의「사역의 의미・용법」을 중심 테마로 하여, 「구문적인 측면에서의 사역의 하위분류」 및「사역동사의 성립 여부」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사역표현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시키는 것이며, 타인에게 어떠한 동작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廣辭苑」 (1977) 또는 「어떠한 사상(事象)을 서술하는 문(기본문)에 다른 관여자(기본적으로는 인간)가 부가되어, 그 관여자의 입장에서 그 사상을 성립시킴을 나타내는 표현」 村木(1989), 「동작 주체에 대해 해당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高橋(2003) 등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결국 「사역」이란 「누군가(사역주체)가 누군가(동작주체)에게 무언가(해당 사태 또는 동작)를 명령·지시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정의되는 사역표현은 전형적으로는 「명령」또는 「강제(지령)」가 사역의 의미의 중심이 되지만, 사역 조동사「(さ)せる」가 내포하는 기본적인 의미 요소 이 외의 다른 의미적 요소 등에 의해 여러가지 파생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오는 사

역의 형태, 구문, 의미적인 면에서의 기본적인 특징을 서술하고, 특히 의미적, 구문적인 면에서의 기본적인 특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오던 사역표현의 전형적인 의미용법 및 파생적의미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았던 그 외의 의미용법에 대해서도 일본 문학 작품 등의 실례분석을 통해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본어 사역표현이 수동표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수 논항의 증감에 따라 구문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끝으로 일본어 사역표현을 구문 또한 생산성이 높다할 수 있는 기본동사를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 사역동사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어 사역표현의 의미적, 구문적 분석은 일본어 사역표현의 이해와 파악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동표현의 재조명과 한국어 사동과 일본어 사역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연구 분석하는데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우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어 사역표현은, 현대일본어에 있어서의 사역 조동사「(さ)せる」에 의해 형성되는 사역표현에 고찰 범위를 국한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본고의 체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인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다.

2장에서는 일본어 사역표현의 기본적인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 특징을 선행연구 를 토대로 개괄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일본어 사역표현의 의미·용법 및 구문적인 면에서의 하위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즉,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일본어 사역표현의 전형적, 파생적 의 미·용법을 중심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사역표현의 파생적 의미를 좀 더 세부적인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구문적인 측면에서의 고찰로, 사 역표현의 즉 수동표현의 구문적 차이에 의한 유형의 하위분류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필수 논항의 증감을 기준으로, 구문적인 면에서 일본어 사역을 「간접사역」과

194 「직접사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에 나오는 기본동사를 대상으로 사역동사의 성립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5장인 결론에서는 이상에서 다룬 일본어 사역표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하기로 한다.



CHOSUN UNIVERSITY ¹⁹⁴Ⅱ. 일본어 사역표현의 특징

현대일본어에서의 사역표현이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동사에 조동사 '(さ) せる'결합한 형태적 특징, 사역자가 문의 주어로서 'が'格을 취하고 실제의 동작주인 피사역자는 'に'格 또는 'を'格을 취하는 구문적 특징, 그리고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작용해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변화를 하도록 하는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좀 더 상세히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하에서 이들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형태적 특징

일본어의 사역표현은 동사에 '(さ) せる'가 결합한 것이라는 것은 '(さ) せる'는 수동을 나타내는 'れる、られる'와 같은 제1류 조동사로 불리는 것들로서 조동사 중에서 가장 조동사다운 조동사로서 활용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さ) せる'는 사역·존경을 나타내는 고어의 'す'가 중세에 와서 'する'形이 되고, 이것이 더욱 일반화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르지 사역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せる'는 5단 활용동사의 미연형, 'させる'는 그 외의 활용, 즉 상1단 및 하1단 활용동사, カ행 변격활용동사, サ행 변격활용동사의 미연형과 결합해서, 하1단 활용동사로 된다2). 활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せる・させる'의 활용형

¹⁾ 第一類조동사란 동사 바로 뒤에 접속해서 그 동작·작용이 작위적인가 또는 자연발생적인가 하는 것을 明示하는 助動詞類를 가리킨다.

²⁾ 여기서 사용하는 오단활용동사、상・하일단활용동사、カ행변격활용동사、サ행변격활용동사란 학교문법 (橋本文法)에서의 용어로, 각각 第一類動詞(五段)、第二類動詞(上・下一段)、第三類動詞(カ変・サ変) [以上は寺村の用語] 또는 强変化動詞、弱変化動詞、混合変化動詞[以上は佐久間の用語]로 分類하기로 한다. 그리고 일본어동사의 활용에 관한 활용형의 명칭과 체계에 대해서는 李吉遠, 日本語動詞의 活用에 관한 研究, 日本日文學, 3, (1995)을 참조할 것.

活用形 基本型	未然形	連用形	終止形	連体形	仮定形	命令形
せる	せ	せ	せる	せる	せれ	せろ (よ)
させる	2년	2년	させる	させる	させれ	*させ (よ)
						させ (ろ)

이와 같은 助動詞 '(さ) せる'는 실제로.



- (1) a. 先生が学生を運動場に集まらせる。
- (2) a . 父は子供を学校まで歩かせた。 (基本動詞)
- (3) a. 子供たちにすきなように動かせた。 (基本動詞)
- (4) a. かわいい子供には苦労させろ。 (基本動詞)
- (5) a. 課長は部下に子供を入学を祝わせた。 (基本動詞)
- (6) a. 彼は係の者に書類を保存させた。 (基本動詞)
- (7) a. 妹にふとんを干させる。 (基本動詞)
- (9) a. 子供に考えを自分の言葉で表わさせる。(基本動詞)

와 같이 쓰이며, 이들 사역문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에 대응하는 것 또는 파생된 것으로서 이해되어진다.

- (1) b. 学生が運動場に集まる。
- (2) b. 子供が学校まで歩いた。
- (3) b. 子供たちがすきなように動いた。
- (4) b. 子供たちが苦労する。
- (5) b. 部下が子供の入学を祝った。
- (6) b. 係の者が書類を保存した。
- (7) b. 妹がふとんを干す。
- (8) b. 子供が考えを自分の言葉で表わす。

(1. a) ~ (4. a)의 예문들은 기본동사를 자동사로 하는 사역문이고, (5. a) ~ (8. a)의 각 예문들은 기본동사를 타동사로 하는 사역문이다. 松下大三郎(1930)는 위의 (1. b) ~ (8. b)와 같은 표현을 '原動', (1. a) ~ (8. a)와 같은 표현, 즉 사역표현을 '使動'이라고 불렀다. 上記의 각 예문 (a)와 (b) 사이에는

(9) a. XがY (を/に) (Zを) V - (使役形) - ru

b. Yが (Zを) V - ru

와 같은 일반적인 대응이 인정된다. '(さ) せる'가 활용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은 <표 1>로서 알 수 있는데, 하1단 활용화한 '(さ) せる'의 활용형을 보면 연용형이 많고, 가정·명령형은 적다고 할 수 있다.

2. 구문적 특징

以上에서 일본어 사역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태'란 동사의 형태적인 범주임과 동시에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의 성립에 관여하는 관여자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작이나 작용의 실현을 파악·표현하는가 하는 格과 格을 표시하는 격조사에 관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동사'(さ) せる'에 의한 기본동사의 형태적인 변화는 관여자 사이의 格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일본어 사역문에 있어서 피사역자가 취하는 格은 'に'格 또는 'を'格이 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①동사의 성질, ②피사역자의 의미자질을 들 수가 있다. 동사의 성질이란 그 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하는 것이고, 피사역자의 의미자질이란 피사역자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동작 ·작용이 가능한 유정물인가 또는 의지를 지니지 못하는, 따라서 자신의 의지에 의한 동작이나 작용이 불가능한 비정물인가 하는 것이다. 以下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기초로 하여 일본어 사역문을 'に'사역문과 '순'사역문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 に' 사역문

우선, 'に'사역문이란 피사역자가 'に'格을 취하는 사역문을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 둔다. 피사역자가 'に'格을 취하는 사역문의 기본동사문으로서 먼저 동사의 성질 면에서는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을 들 수 있으며, 피사역자의 의미자질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동작 또는 작용이 가능한 유정물이어야 한다. 기본동사문이 타동사문인 경우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는 유정물, 주체는 동사을 받는 대상은 비정물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주체와 대상 모두가 유정물인 경우도 있다. 한편, 자동사문이 기본동사일 경우 피사역자가 'に'格을 취하기 위해서는 피사역자가 유정물이어야만 한다. 예를 보기로 한다.

- (10) a. 次郎が三郎をなぐる。
 - b. 太郎が次郎に三郎をなぐらせる。
- (11) a. 車掌が乗客をバスから降ろす。
 - b. 運転手が車掌に乗客をバスから降ろさせる。
- (12) a. 花子が本を読む。
 - b. 母親が花子に本を読ませる。
- (13) a. 生徒が荷物を一カ所にまとめる。
 - b. 先生が生徒に荷物を一カ所にまとめさせる。

上記의 예문 (10) ~ (13)은 기본동사를 타동사로 하는 문(각 a. 예문)과 그 사역문(각 b. 예문)들로서 예 (10.a), (11.a)는 주체와 객체가 모두 유정물인 경우이고, 예(12.a),(13.a)는 주체가 유정물, 주체는 비정물인 경우이다. 이러한 기본동사문이조동사 '(さ) せる'에 의해서 사역문으로 비친다는 사실은 사역자라는 새로운 주어의 등장으로 인해 1항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동사문의 주어는 기본타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의 실질적인 동작주이기는 하나 주어로서의 格은 상실

하게 되고 'に'格을 취하는 보어가 되는 것이다. 예 (10)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기본동사문 (10.a)에는 없던 새로운 주어 '太郎'이 사역자로서 등장하여, '(さ) せる'가 나타내는 사역행위의 주체가 되고, 기본동사문 (10,a)의 주어 '次郎'은 '太郎'의 등장으로 해서 'に'格補語가 되지만, 기본동사 'なぐる'가 나타내는 동작을 행하는 동작주가 된다. 이런 현상은 기본동사문에서 주체만을 유정물로 하는 경우인 예문 (12)와 (13)에서도 동일하다. 예문 (12)를 예를 들면, 기본동사문의 주어 '花子'는 새로운 주어 '母親'의 등장으로 인해 'に'格補語로 되어 사역자 '母親'의 사역행위를 받는 피사역자인 동시에 기본동사 '読む'의 실제 동작주가 되는 것이다.

즉, 관여자를 모두 유정물로 하는 사역문을 전형적인 사역문이라고들 하나 그다지 쓰이지 않고, 예(12.b), (13.b)와 같은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본동사를 타동사로 하는 사역문에 있어서는 피사역자가 'に'格을 취하지 않고 'を'格을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非文이 된다3).

- (14) * 太郎が次郎を三郎をなぐらせる。
- (15) * 運転手が車掌を乗客をバスから降ろさせる。
- (16) * 母親が花子を本を読ませる。
- (17) * 先生が生徒を荷物を一カ所にまとめさせる。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寺村의 설명을 빌리자면, '客体'라는 형태의 보어와 결합이 강한 동사는 '~をV-'라는 식으로 이어졌을 때, V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는 'V-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동작·작용·행위를 받는 객체'라고 하는 해석이, V-sase-라는 형태 전체가 나타내는 '사역행위'를 받는 것이라는 해석을 압도하기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与える、貸す、教える、入れる'등의 타동사는 'XがYにZをV-'와 같이 보어로서 아래의 예문 (18.a), (19.a)처럼 'を', 'に' 둘 다 취하는 경우인데,

³⁾ 例文 (10.a)와 (11.a)처럼 주체와 객체가 모두 유정물인 경우 그 사역문인 (10.b),(11.b)에서의 주어 '太郎', '運転手'는 'させ手', 'に'格補語 '太郎'과 '車掌'은 'し手', 'を'格補語 '三朗'와 '乘客'은 'され手'가 되거나, 객체가 비정물인 타동문[例文(12.a)(13.a)]의 사역문인 例文(12.b)와 (13.b)]는 'させ手'['母親', '先生']와 'し手'['花子', '生徒']는 있으나 'され手'는 없다. 비정물에 대해서는 'され手'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18) a. 弟子が子どもたちに将棋を教える。

- b. 師匠が弟子に子どもたちに将棋を教えさせる。
- c. * 師匠が弟子を子どもたちに将棋を教えさせる。
- (19) a. 弟がその荷物を弟の友人にあずける。
 - b. 私が弟にその荷物を弟の友人にあずけさせる。
 - c. * 私が弟をその荷物を弟の友人にあずけさせる。



이들을 사역문으로 했을 경우 예문(18.b)처럼 피사역자가 'に'格을 취해서 'に'格이 겹치게 되는데, 이는 별로 매끄러운 표현은 되지 못하나 자연스러운 반면, 예문 (19.c)처럼 피사역자가 'を'格을 취하면 이 경우도 'を'格이 겹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非文이 되어 버린다4)

한편, 자동사의 사역문도 피사역자가 'に'格을 취하게 된다. 우선 예부터 보기로 하자.

- (20) a. 子供たちにすきなように動かせた。 (= 10.a)
 - b. 子供たちがすきなように動いた。
- (21) a. 父は子供に学校まで歩かせる。
 - b. 子供が学校まで歩く。
- (22) a. 子供に公園で遊ばせる。
 - b. 子供が公園で遊ぶ。
- (23) a. 先生が生徒たちに家に帰らせる。
 - b. 生徒たちが家に帰る。
- (24) a. 先生が学生に自分の席にすわらせる。
 - b. 学生が自分の席にすわる。

⁴⁾ 寺村秀夫、전게서, P. 295.

上記 예문 (20) ~ (24)은 각각 '動く', '歩く', '遊ぶ', '歸る', 'すわる'라는 자동사의 기본동사문(각 b. 예문)과 그 사역문(각 a. 예문)들이다. 이들의 경우 기본동사문에서의 주격이 사역문에서 'に'格을 취해서 사역자의 사역행위를 받는 피사역자가 된다. 이 때 피사역자의 의미자질을 보면 '子供たち', '子供', '生徒', '學生' 등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가 가능한 유정물이다. 한편, 이들 유정물을 피사역자로 하는 사역문은 피사역자가 'を'格을 취할 수도 있다5).

- (20) a'. 子供たちをすきなように動かせた。
- (21) a'. 父は子供を学校まで歩かせる。
- (22) a'. 子供を公園で遊ばせる。
- (23) a´. 先生が生徒たちを家に帰らせる。
- (24) a'. 先生が学生を自分の席にすわらせる。

이처럼 유정물을 피사역자로 하는 자동사의 사역문의 경우 피사역자가 'に'格과 'を'格 양쪽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피사역자가 의지를 가진 유정물이라는 점과 동 사의 의미자질 즉,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寺村(1982)는 피사역자가 'を'格을 취하느냐 'に'格을 취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동상의 성질, 특히 동사가 어떤 보어를 취하는 동사인가 하는 것과, 피사역자의 성질, 특히 그 자체 가 意思를 가지고 행동 할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였 다6).

한편 피사역자가 上記 예문처럼 'を'格도 'に'格도 취할 수 있는 사역문에 대해서 紫谷(1987)는 그 의미의 차이를 'に'格의 경우는 피사역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고, 'を'의 경우는 피사역자의 意志를 무시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に'사 역문에 대한 實例를 타동사, 자동사 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7). 진한 活字부분이

⁵⁾ 이들 자동사들은 형태적으로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못하므로 絶對自動詞로 불리는 것들이다.

⁶⁾ 寺村秀夫, 전계서. P. 293.

⁷⁾ 非使役者를 유정물로 하는 의지성 자동사의 사역문의 實例를 보면 非使役者가 실제로 'に'格을 취하는 경우는 드문 듯하다.

유정물의 사역자이고, 외곽선 活字부분은 피사역자이다.

2.1.1. 타동사 사역문

【표-2】 타동사 사역문

[기본문]	弟	うが	薬を	飲む。
[타동사의 사역문]	母が	弟に	薬を	飲ませる。

		기본문	타동사 간접 수동문			
타동사		AがBを~する		CがAにBを~させる		
구문		An De - 9 2	Ch. HeBa of Gara			
예문		弟が薬を飲む	母が弟に薬を飲ませる			
조사	주어	Aが(弟が)	주어	Aに (弟に)		
동사의	목적어	Aを (ミルクを)	목적어	Bを (ミルクを)		
	Ø	기본문에 없음		Cが (母が)		
교체	동사	する (飲む)	동사	(さ) せる (飲ませる)		

타동사 구문의 특징

○ 타동사 사역문의 경우는 자동사사역문의 경우와 달리, 기본문의 주어는 사역문에서 조사「に」만을 취할 수 있는데, 「を」를 취할 수 없는 이유는 타동사문의 목적어가 사역문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본어에 있어서는, 한 문장 내에 목적어「を」가 두 번 이상 나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25) このひと月ほど、父は我かに、毎日にように**与之介**にも座禅を組ませるようになった。それが何の故か、与之介にはわからない。 (千利休, p. 101)
- (26) 教授は彼に日本の古典を翻訳させた。 (基本動詞, p. 470)
- (27) 港には、**織田信長**が九鬼嘉陸、**丹羽長秀**に命じて造らせた軍船が停泊していた。 (千利休, p. 189)
- (28) 彼は係の者に書類を保存させた。 (基本動詞, p. 468)
- (29) その夜館に帰った**秀吉**は、なぜかひどく不機嫌であった。**利休**に茶を点てさせながら、 秀吉の眉間には深いしわが刻まりていた。 (千利休, p. 258)

CHOSUN UNIVERSITY 1946 _{2.1.2.} 자동사 사역문

【표-3】 자동사 사역문

[기본문] 弟が (スーパーへ) 行く。

	기본문				자동사 사역문		
자동사							
	AがBを~する				CがAを/A~ (さ) せる		
구문	110 Bc / 3				G. 11G/ 11 (4/ = 5		
예문	弟が (スーパーへ) 行く		、	母が弟	を/弟に (スーパーへ) 行かせる		
조사	주어	Aが (弟が)		주어	Aを (弟を) /Aに (弟に)		
동사의	Ø	기본문에 없음			Cが (母が)		
교체	동사	する (行く)		동사	(さ) せる (飲ませる)		

◎ 자동사 사역문의 경우, 기본문의 주어가 사역문에서 조사 「を」나「に」양쪽 다 취할 수 있는데, 보통, 「を」를 취하는 경우는 행위자(兄)의의지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강제사역」으로, 「に」를 취하는 경우는 행위자(兄)의 의지를 일단 받아들이고 행위를 허용하는 「허용사역」으로 의미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다.

母が弟をスーパーへ行かせる。

자 동 사 ((형이 가기 싫어하는 데) 엄마가 형을 슈퍼에 보내다) 구 문 의 母が弟にスーパーへ行かせる。

구 문 의 특징

((가고 싶어 하는) 형을 엄마가 슈퍼에 보내다)

◎ 자동사라 할지라도 「歩く、走る」등과 같은 이동동사의 경우 「を」가 기본문에 이미 존재할 때는 사역문에서 「を」가 겹치게 되므로, 기본문의 주어는 「を」를 쓰지 못하고, 「に」를 써야한다.

×先生は 学生たち**を** 山道**を** 走らせた。

〇先生は 学生たちに 山道**を** 走らせた。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산길을 달리게 했다)

(30) **秀吉**は、この年五月、**妹の朝日姫**を家康に嫁がせた。 (千利休, p. 255)

- (31) 上使が帰るや否や**利休**は直ちにおりきと**女たち**を屋敷から去らせ、淀の渡し場に向かわせた。 (千利休, p. 334)
 - (32) **武将**を出陣させては、その妻を城内に呼んで、**秀吉**は口説いたのである。 (千利休, p. 261)
 - (33) **さえこは**、瀬川を改めるように見て、「どうぞ」と、仕方なさそうに玄関の中に招じた。だが、彼を上げるのではかった。格子戸を開いたままにし、**瀬川**をそこに立たせ、自分は、奥へ行って座蒲団を抱えてきた。 (草の陰刻, p. 89)

2.2. ' を '사역문

以上에서 피사역자가 'に'格을 취하는 사역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피사역자가 'を'格을 취하는 사역문의 구문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사역자가 'を'格을 취하는 사역문은 기본동사문인 자동사의 경우이다. 그 중 피사역자가 유정물이고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자질을 지닌 경우는 'に'格 사역문에서 아울러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피사역자가 유정물이면서 'を'格만을 취하는 자동사의 사역문을 보기로 한다. 우선 예부터 보기로 하자.

- (34) a. 太郎が次郎を驚かせた。
 - b. 次郎が驚いた。
- (35) a. 息子が両親を喜ばせた。
 - **b**. 両親が喜んだ。

이들 문은 사역자인 '太郎', '息子'와 피사역자인 '次郎', '両親'이 유정물로서 대립하는 타동사가 없는 자동사의 사역문이다. 우선 여기서 자동사 '驚〈'와 '喜ぶ'의 성격을 보기로 하자. 이들 자동사들은 인간의 심리·감정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간의 意志와는 무관한 동사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사들이 사역문을 만들때는 피사역자인 인간8)이 'を'格 밖에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역자에 관한 문제로서 위의 예문을 보면 사역자가 인간 즉 유정물이나 이 사역자의 피사역자에 대한 사역행위는 명령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사역자의 심리상태나 감정상태가 변화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45)의 경우, '太郎'가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또는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 '太郎が驚く'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되는 것이다. '太郎'가 '次郎'에게 '驚く'하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사역행위에 의해 '太郎が驚く'라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유정물의 사역자가 되어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역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가 실제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實例를 들어보기로 하자. 下線부분이 실제의 사역자에 해당한다.

- (36) 船上ではたらく者の声が、潮風に乗って遠く聞えるのも趣があった。その声に誘われた与之介が、 <u>'おーい'とおさない声を上げて、</u>おとなたちを笑わせた。 (千利休, p. 2 6)
- (37) いつか宗久は、おりきの行方を知らせてやろうと言ったことがある。が、宗場は、<u>'京で</u>あろう'と言って、宗久を驚かせた。 (千利休, p. 132)
- (38) 三人衆は東大寺に陣を構えていたが、その東大寺の大仏展に、松永久秀は<u>火を放って</u> 世間を驚かせた。 (千利休, p. 112)
- (39) <u>歯に衣を着せぬもののいいようは</u>、度度茶人たちを怒らせるとも聞いていた。 (千利休, p. 111)

다음으로 비정물을 피사역자로 하는 자동사의 사역문과 비의지성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0) a. 溝を掘って水を流れさせる。b. 水が流れる。

⁸⁾ 注: 그에 준하는 것

- c. 水を一度に流す。
- (41) a. ゼリーを冷蔵庫に入れてかたまらせる。
 - b. ゼリーをかたまる。

上記 예문의 경우 우선 피사역자의 의미자질을 보면, 비정물[(40, a,)의 '水', (41, a.)의 'ゼリー'로서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가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기본동 사문[(40. b.), (41. b.)]은 자동사문인데, 이들 자동사들은 (40. c.), (41. c.)로 알 수 있듯이 형태적으로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고 있다⁹⁾. 이처럼 피사역자가 비정물이 고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는 자동사일 경우 寺村(1982)의 지적처럼 자동사의 사역 표현보다는 타동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동사의 사역표현을 쓰면 매우 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10).

아래의 예가 그것이다.

- (42) a. * 手紙をもどらせる。
 - b. 手紙をもどる。
 - c. 手紙をもどす。
- (43) a. * 注意書をまわらせる。
 - b. 注意書をまわる。
 - c. 注意書をまわす。 [青木(1977) 로부터 引用]

이들의 부자연스러움은 다음의 예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 (44) a. 学生をあつまらせる。
 - b. 学生があつまる。

⁹⁾ 寺村(1982)는 형태적으로 대립하는 他動詞를 가지고 있는 自動詞를 相對自動詞라 부르고 있다. 10) 寺村秀夫, 전게서, P. 293.

- c. 学生をあつめる。
- (45) a. 小学生を三時にかえらせる。
 - b. 小学生が三時にかえる。
 - c. 小学生をかえす。



上記 예문 (42), (43)는 피사역자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가 전혀 불가능한 비 정물이므로 자동사의 사역문은 非文이 되고 타동표현만이 자연스러운 표현인 반면. 예문 (44), (45)의 경우는 피사역자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가 가능한 유정물이 므로 자동사의 사역문과 타동문 양쪽 다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따라서 (40). (41)의 경우도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가 불가능한 비정물이므로 자동사의 사역표 현이 부자연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은 피사역자의 의미자질에 의한다. 즉 피사역자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는 불가능 하지만 어떤 조건이나 환경만 갖추어주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비 정물일 경우 자동사의 사역표현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예문 (40), (41)의 피사 역자'水','ゼリー'는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정물인 것이다. 靑木(1977) 와 井上(1976)는 각각 이러한 비정물의 자동사 사역문에 대해서 "자동사의 無生主 語도 자발성을 지니고 있거"나 "인간이 아니더라도 실현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고 하고 있다.

한편, 森田(1971)는

- (46) a. コロンブスが卵を立てた。
 - b. コロンブスが卵を立たせた。

라는 예문을 들고 (a)는 '卵を立てた'라는 객관적 사실, コロンブス의 타동행위의 사 실을 단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b)는 본래 설수 없는 달걀을 여러 가지로 궁리해서 세우는 일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楊凱榮 (1989)에서는

- (47) a. 鉄パイプを曲げて椅子の足を作る。
 - b. * 鉄パイプを曲がらせて椅子の足を作る。
- (48) 鉄パイプを曲がらせるには熱を加えるとよろしい。

라는 예를 들고, '曲げる'를 쓴 (47. a.)는 옳은 文이나 '曲がらせる'를 쓴 (47. b.)는 부자연스러운 文이 되며, 같은 '曲がらせる'를 쓴 文임에도 불구하고 예문 (48)은 자연스러운 文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楊凱栄(1989)은 세 文 모두 피사역자 '鉄パイプ'가 '曲がる'라는 상태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공통이지만, '鐵パイプ'의 상태변화의 실현이 사역자의 목적이냐 아니냐 라는 것에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楊(1989)의 설명을 조금 더 보기로 하자. 楊(1989)은,

- (49) a. 水を流して汚物を流れさせる。
 - b. * 水を流れさせて汚物を流す。
- (50) 下水の詰まった水を流れさせた。

와 같은 경우 "水'와 '汚物'에 대해서 타동의 '流す'와 사역의 '流れさせる' 어느 쪽을 사용해도 가능하나, '流れさせる'는 피사역자의 상태변화의 실현이 목적일 경우에만 쓰이고, 수단인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49)에서는 '水を流す'하는 일이 수단, '汚物を流れさせる'하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汚物を流れさせる'를 사용한 (a)는 바른 문이나, '水を流れさせる'를 사용한 (b)는 非文이다. 이에 대해 '水を流させる'하는 일이 목적인 (50)은 적합한 文이 된다"고 하면서 "피사역자의 상태변화의실현이 목적이 아닌 문맥에 있어서는 설령 피사역자인 명사에 소위 자발성이 있어도, 반드시 '자동사+させる'가 쓰인다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피사역자인 명사에 자발성이 없어도 피사역자의 상태변화의 자발성이 중시되고, 더구나 그 상태변화의실현이 목적일 경우, '자동사+させる'의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CHOSUN UNIVERSITY 한편, 定延(1991)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51) "ご存じのように当自動車レース同好会では、いつもレース前には注意書の回覧を行い、 会員に安全運転を呼びかけています。しかし最近は注意書が、回覧途中で紛失したり、また回覧が非常に遅滞したりと、まともに機能しなくなってきています。次回のレースでは、会員の皆さんの良識に期待しております。"事務局からこのような通知を受け取った会員たちは、次のレースでは全員一致団結して、注意書をなんとか正常にまわらせた。

'注意書'라는 비정물이 피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사+させる'즉, 'まわらせた'라는 사역태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판단하는 화자가 많다고 하고 있다. 定延 (1991)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원래 '注意書の会員間一巡"은 全會員이 '注意書を別の会員に渡すこと'를 달성시켜야 비로소 실현된다고 하는 외관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51)의 경우, 전원 일치단결해서 · 어떻게 해서든 · 정상적으로 등의 語句 및 通知內容에 의해, 會員들이 注意書를 다른 회원에게 건네줄 목적이(부분적이든) [注意書の会員一巡]에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以上의 事情은 [注意書の会員間一巡]을 본그대로인 구체적 · 卽物的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ァーゼ11)이기도 한 것으로 인식하기 쉽게 한다. 그리고 화자가 그러한 인지를 했을 경우, 표현되는 事象은화자의 내부에서 확장되어 단일한 과정 (52. a)보다도 複數과정(52. b)로 파악된다.

(52) a. [回覧開始前] → [注意書一巡] 会員たち

b. [回覧開始前] → [注意書一巡] → [テーゼ成就] 会員たち 道理

회원들의 직접적인 사역행위(働きかけ)은, 注意書가 회원간을 一巡한 다는 구체적 · 即物的인 사건의 실현과정으로 인정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후의 과정 -

¹¹⁾ テーゼ라는 用語에 대해서 定延는 "여기서의 'テーゼ'란 命題・目標課題・スローガン 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注意書가 一巡하고 나서 テーゼ[注意書の会員間一巡]이 성취되기까지 - 은 추상적인 인식세계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 직접 사역행위하는 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道理라고나 할까? 여하튼 회원들은 이 과정에 직접 사역행위할 수는 없다. 따라서 事象의 성립에 대한 사역주의 사역행위는 간접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있다"고설명하고 있다.

森田、楊、定延의 주장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森田、楊、定延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스스로 상태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비정물 피사역자일지라도 사역자가 피사역자의 상태변화를 어떻게 해서든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역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자동사의 사역문도 가능하다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피사역자가 'を'格을 취하는 두 번째 경우를 보기로한다.

- (53) a. 子供がエレベーターを故障させる。
 - b. エレベーターが故障する。
- (54) a. 男が車を走らせる。
 - b. 車が走る。
- (55) a. おじいさんが花を咲かせる。
 - b. 花が咲く。
- (56) a. 太郎が足をばたづかせる。
 - b. 足がばたづく。
- (57) a. 妹が目をぱちくりさせる。
 - b. 目がぱちくりする。

上記의 예 (53) ~ (57)의 사역문 역시 비정물을 피사역자로 하는 자동사의 사역 태라는 점에서는 첫 번째로 살펴본 자동사 사역문과 공통되나, 이들 사역문은 형태 적으로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못하는 자동사의 타동용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앞서의 'まがらせる', '流れさせる' 등과는 다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53) ~ (57)의 피사역자의 의미자질을 보면 'エレベーター', '車', '花', '足', '目', 등 자신의 의지에 의한 동작이 불가능한 비정물이다. 그리고 '故障する', '走る', '咲く', 'ばたづく', 'ばちくりする'등의 자동사는 'あつまる(自) - あつめる(他)', 'たつ(自) - たてる(他)' 등과 같이 타동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없는 것에 작용해서, 사역행위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원래 타동사의 역할이고 보면12), 이들 비정물이 상태변화를 일으켰을 때에 타동표현에 상응하는 표현이 필요하게 된다.

上記 (53) ~ (57)의 (a)가 타동표현을 대신하는 용법으로 쓰인 자동사의 사역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例 (53) ~ (55)의 피사역자와 例 (56), (57)의 피사역자는 비정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면서도 또 성격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前者는 사역자와는 別個의 일부분으로 사역자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高橋(1985)는 後者와 같은 경우를 '再歸態'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사역성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사역자가 유정물이면서 ' ϵ '格을 취하는 자동사의 사역문의 구문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피사역자가 유정물이면서 ' ϵ '格을 취하면 적합한 文이고, ' ϵ '格을 취하면 非文이 되는 경우로서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사의 사역문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 (58) a. 突然の来客が母を慌てさせた。 (基本動詞)
 - b. * 突然の来客が母に慌てさせた。
 - c. 母が慌てた。
- (59) a. しっかり働いて両親を安心せせる。 (基本動詞)
 - b. *しっかり働いて両親に安心させる。
 - c. 両親が安心する。
- (60) a. その発言が議長を怒らせた。 (基本動詞)

¹²⁾ 寺村秀夫, 전게서, P. 295.

CHOSUN UNIVERSITY 1946 b * その発言

- b. * その発言が議長に怒らせた。
- c. 議長が怒った。
- (61) a. 変わった企画のパーティでみんなをびっくりさせるつもりだ。 (基本動詞)
 - b. 変わった企画のパーティでみんなにびっくりさせるつもりだ。
 - c. みんながびっくりする。

以上, 사역문에 쓰인 자동사들은 인간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로서 본인의 의지에 의한, 행위가 불가능한 비의지성 동사들이다. 이러한 자동사의 사역문은 사역자의 피사역자에 대한 사역행위가 지시·명령 등 언어에 의한 것은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이 성립한다. 실질적인 행위의 결과 피사역자가어떤 심리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예문 (58)의 경우 '来客'이 사역자이기는 하지만 피사역자인 '母'에 대해서 지시나 명령 등에 의한 사역행위를 함으로써 '母が慌てる'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13)함으로 해서 '母が慌てる'라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피사역자인 '母'는 'に'格을 취하면 부자연스런 표현이 되는 非文이 되는 것이다.

3. 의미적 특징

以上에서 살펴본 일본어 사역문의 기본적인 의미는 '他에 사역행위해서 어떤 동작이나 사역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어에 있어서 사역이라는 개념은 주로 '(さ) せる'의 용법으로 설명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동작·작용을 하도록 사역행위할 때의 관계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우선 宮地裕(1969)는 사역의 의미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누군가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대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¹³⁾ 注: 고의적, 비고의적인 것은 문제시하지 않는다.

CHOSUN UNIVERSITY 194_{하는 뜻.}

(例)父は花子に太郎をしからせた。

- [2] 누군가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여 무엇을 하도록 <mark>하는</mark> 뜻.
 - (例)父は花子に英語を習わせた。
- [3] 누군가가 누구인가의 동작을 허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 (例) さきに食べさせた。

今日は彼を休ませようか。

- [4] 누군가가 누군가의 자유방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 (例) あまり赤んぼうを泣かせるのはよくない。 彼にかわっていわせておくさ。
- [5] 누군가의 부주의한 것이나 폐(불쾌함) 등을 나타낸다.
 - (例) 長女を早く死なせてから臆病になった。

阪田雪子(1980)도 사역의 의미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宮地의 분류와 비슷하다.

- [1] 문자대로 사역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낸다.
 - (例) 私は娘に料理を作らせた。
- [2] 어느 것을 하여, 기대대로의 결과가 되도록 하는 뜻을 나타낸다.
 - (例) お世辞を言って、彼女をよろこばせた。
- [3] 본래, 본인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신이 허가를 부여하는 결과 본인의 의지대로 그것이 실현되는 뜻을 나타낸다.
 - (例) 本人の希望を入れてアメリカに留学させた。
- [4] 상대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방임한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例) かってに怒らせておけ。
- [5] 의도적으로 그러했던 것은 아닌데, 어느 결과(일반적으로 바라지 않다)를 부른 사태에 이르렀다는 뜻을 나타낸다.

CHOSUN UNIVERSITY 1946 (例) うっかり生命

(例) うっかり失礼なことをいって彼を怒らせてしまった。

또한, 紫谷方良(1978)는 生成文法의 입장에서 일본어의 사역문을 '誘發使役'과 '許容使役'으로 나누고, 어떤 事象이 사역자의 유발에 의해서 발생하면 '誘發使役', 어떤 事象의 실현을 사역자가 방해 하려고만 생각하면 방해할 수도 있는데, 방해 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은 '許容使役'이라고 하였다. 氏는 또 피사역자가 취하는 助動에 따라서 피사역자의 意志가 무시('を'格)되거나 피사역자의 의지가 존중된다고 하였다. '許容使役'은 다시 '적극적인 허용'과 '소극적인 허용'으로 나누며 前者는 'に'格을, 後者는 'を'格을 취한다고 하였다.

以上을 종합해 보면 일본어의 사역문의 의미는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강제 :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의미이다.

(例) おばあさんを困らせるような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

父は花子に英語を習わせた。

 허용: 피사역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역자가 방해하지 않고 인정하는 뜻을 지닌다. '~てやる, ~てくれる, ~てもらう, ~ていただく' 등과 결합되면 허용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例) 本人の希望を入れてアメリカに留学する。

十七日の朝刊はやすませていただきます。

<c> 방임: 피사역자의 행위를 묵인한다기 보다 '방임'하는 뜻을 나타낸다. '~ておく'와 결합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例) こどもじゃないんだから、したいようにさせよう。

かってに言わせておくさ。

<d> 피해 :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어떤 결과(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를 초래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946

(例) もっと気をつけていれば、彼を死なせずにすんだのに。 朝寝坊をして、友だちを一時間も待たせてしまった。



CHOSU

CHOSUN UNIVERSITY ¹⁹⁴Ⅲ. 일본어 사역표현의 하위유형

- 1. 의미적 관점에서의 하위유형
- 1.1. 강제(지령)



강제는 사역의 의미용법 중 가장 대표적인 하위유형이다. 또한, 많은 용례를 보더라도 <강제>가 「V(サ)セル」라는 형식을 가진 표현·구문의 중심이며,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실례를 조금 들어 보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문은 <강제>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 (62)「私はおまえをそれに参加させることにした。」 牢獄
- (63)「当時、十七になったばかりの富子を急いで私と結婚させたのもとサです。」 新開地
- 이 예문은 자동사를 사용하는 자동사 사역형의 예문이다.
- (64)「犯人は英子にドアを開けさせることのできた新しい者であると推測された。」公開
- (65)「私が女と話をして相手を安心させ、うしろから共犯者に煉瓦で女の後頭部を殴打させました。」(処刑)

등이, 타동사의 사역형의 예이다. 이들 자동사, 타동사의 사역형은, 모두<강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강제>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의 의미적·구조적인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강제>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들 수 있다.

- (a) 두 가지의 사태를 포함하고 있다.
- (b) 단순히 대상의 행위뿐만 아니라, 대상의 변화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 (c) 사역의 구체적인 사역행위 대해서는 언급<mark>하</mark>지 않는다.
- (d) 사역행위는 간접적이다.

(a)(b)(c)는 단순히 <강제>만으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아닌, 「-(さ)せる」라고 하는 접사를 가진 파생동사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사역 표현 전반 및 「割る」「壊す」「上げる」「送る」「殺す」등이라는 <대상변화 타동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가장 적합한 특징이다. 이에 비해, (d)는, <강제>에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다. 그럼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a)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 두 가지의 사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우선, <강제>가 두 가지의 사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즉 <강제>가 복합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두 가지의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미적인 단계의 복합성이다. 또 하나는, 통어 구조적인 단계의 복합성이다.

[1]. 의미적인 단계의 복합성

〈장제〉의 의미적인 단계의 복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면,「大川さんが女あんまに肩をもませた」라고 하는 〈장제〉의 文을 예로 들면, 이 文에서는 [女あんまが大川の肩をもませた] 와 [大川さんが女あんまにある種の働きかけをした]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태가 포함되어 있다. 단, 이러한 경우 의미적인 단계의 복합성은 무엇보다 〈장제〉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생동사에 의해 형성되어있는 사역표현전반과, 단순동사인 〈대상변화 타동사〉에서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子供が窓ガラスを割った」라고 하는 대상변화 타동사의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窓ガラスが割れた] 라는 사태와 [子供が窓ガラスに対してある種の働きかけをした] 라고

하는 사태의 두 가지의 事態가 포함되어 있다.

또, 「女あんま」와 「窓ガラス」의 例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事態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對象(여기의 「女あんま」와「窓ガラス」는 단순히 주체의 사역행위로 대상에 한하지 않고, 행동과 변화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상은, 주체의 사역행위의 대상과 함께 스스로의 행동・변화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강제>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역표현 및 대상변화 타동사에 의한 사역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2]. 통어 구조적인 단계의 복합성

통어 구조적인 단계의 복합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의미적인 단계에서의 복합성은, 사역표현에만 한하지 않고, 대상변화 타동사에 있어서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통어구조적인 단계에서의 복합성에 대해서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 柴谷(1978)14)과 井上(1976)15)등이, 사역문이 가지고 있는 종속구조와 복문구조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제의 잠정적 규정

<강제>라는 사역표현의 타입에 대해서 잠정적인 규정을 해 놓기로 한다. <강제>라는 것은, 동작주체(대상)의 의지에 호소하여 사역행위를 하는 사역주체의 사역행위를 통해, 동작주체에게 스스로가 그 실현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행동과 변화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1.2. 허가, 묵인

다음으로 <허가>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역적인 표현 전반에 통하는 특징이나, 「사람의 의식적인 행동을 야기 시키는 사람의 의식적인 사역행위」를 나타내는 타입의 사역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관해서는 이미 <강제>의

¹⁴⁾ 紫谷方良(1978), 「日本語の分析」、東京、大修館

¹⁵⁾ 井上和子(1976)、『変形文法と日本語・上』, 大修館書店

절에서 이야기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허가> 특유의 성질을 간단하게 논해 보 도록 하자.

〈허가〉에 있어서는, 다음에 논하는 〈유지‧방임〉과 함께, 〈강제〉와 다른, 동작주체가 실현하는 행동이나 변화의 계기‧근원이 동작주체에 존재하고 있다. 즉, 동작주체의 행동과 변화는 아직 실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작주체의 의도와 희망 중에 있으며,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사역주체는, 동작주체의 의도와 희망 중에 있는 행동과 변화의 실현에 대한 非阻止자로서 동작주체의 행동‧변화의 실현에 관여하게 된다. 非阻止의 상태에는「허가부여」를 행하는 것과 「묵인」을 하는 것이 있다.

<하가>의 타입은, <강제>등과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많지 않다.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을 야기 시키는 사람의 의식적인 사역행위」를 나타내는 타입의 사역표현의 전형·대표적인 것은 역시 <강제>이다. <허가>는 <강제>와 비교해 보면주변적인 존재이다.

우선, <허가 부여>型부터 보기로 한다. 약간의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66) いちおう住所と姓名を確認し、指紋をとり、そのまま帰宅させました。(骨)
- (67) 「どうしたの?といるか?といれへ行きたいのか?」~緊急の場合であるし、脇道のどこかで用を足さしてやらばければ、もらしてしまいそうな状況だった。(江の島)
- (68) 英子死後、美容院の経営を周が続けさせてくれ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だが二千万あれば何の不安もない。どこか遠くへ行って、店も持てる。(公開)
- (69) 隠しても無駄だ。俺はもう死ぬんだ。おさらばだ。教誨師に会いたいと言ったら、あいつらは会わせてくれた。(処刑された)

<하가>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에는 (67)과 같이 「-(さ)せてやる」의 형식을 가진 것이나, (68)(69)처럼 「-(さ)せてくれる」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것이 많다. 하지 만, (66)(67)처럼 「-(さ)せる」만의 형식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¹⁶⁾

긍정형의 경우, 극히 소수지만 부정형에서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면,

- (70)「コントロールセンターににげこむ気だな! そうはさせんぞ!」 (葛飾22巻)
- (71) 家族には、弟が自分の病気を楽観したままで、むしろ早く生を終えることを願うようにさとし、また高齢の母と姉には息を引きとるまで真実を告げず不安を告げず、そのためには生前の面会もさせずにすませることを独断で強いるのがよいと思った。(私々)
- (72) 中川さんにたいする同情も勿論ありますが、それよりも我々の退屈を今後まざらわしてくれる べき一羽の島まで飼わせない、そのキソクずくめが癇に障るのです。(男)

등은, 모두 「-(さ)せ [ない/ん/ず]」가 <허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허가>를 나타내는 「-(させる)」의 否定形이다. 또 지금까지 例로 들었 던 <허가>의 사역표현은, 모두 사역주체가 동작주체의 행동이나 변화의 수행에 허 가를 해줌에 따라, 행동의 실현에 관여한다는 <허가 부여>의 타입이다. 이에 비해, 예를 들면,

(73) もし、おれがきみを危険分子として訴えるつもりなら、署長に口添えをして無事に釈方させたりはしない。(彼等)

와 같은 예문은, 행동의 계기가 사역주체에 존재한다는 <강제>를 나타내는「(さ) せる」의 否定形이다.

긍정형의 경우 <강제>에 해당하는 타입의 용례가 <허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비해, 否定形의 경우는, 어느 쪽인가 하면 <허가>에 해당하는 용례가 <강제>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否定形에서는 <허가>가 <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것일까? 왜 <허가>는 긍정형에서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형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例가 존재하

¹⁶⁾ 注: 단,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형의 경우의 그 수는 <강제>에 비해 매우 적다.

CHOSUN UNIVERSITY 194은 것일까?

〈허가〉의 경우, 동작주체의 행동, 변화의 계기·근원은 동작주체에 있었다. 따라서 사역주체가 제지만 하지 않으면, 동작주체의 동작·변화는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의미로 「-(サ)セル」의 긍정형의 경우, 사역주체의 사역행위는, 동작주체의 행동·변화의 발생에 있어서, 그다지 효과적인 사역행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방치해 놓으면 동작주체의 행동·변화가 실현되는 경향이 있게 되므로, 반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동작주체에 행동·변화를 행하지 않는다는 사태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역행위이다.

<하가>는 긍정의 경우, 사역주체의 사역행위가 비실효적이던 것에 비해, 부정의경우에서는, 반대로 사역주체의 사역행위는 효과적(실효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허가에서는 통상 사역상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긍정형의 경우가 아닌 부정형의 경우이다. 이것이 <허가>가 부정형에 많은 근본이 되는 원인이다.

다음은 <묵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는 <허가부여>형의 <허가>의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스스로의 계획·희망에 따라서 동작주체가행동·변화를 실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사역주체는 제지를 하지 않음에 의해, 그실현에 관여하고 있는 <묵인>형의 <허가>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면,

- (74) 彼はそのまま彼女をいかせてやった。
- (75) その日の午後、野田医師が近くに急患が出て、往診のついでに、大原の容態をみに立ち寄ってくれた。そのときはおとなしく診察させた。医者が帰ったあと、彼は志保子を叫んだ。「おまえ、おれを騙したな」 (精神)

등이, <묵인>형의 <허가>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이다. <묵인>형에서는 사역주체의 묵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어서는, 동작주체의 행동은 바로 실현직전의 단계에 있지만, 아직 실현 되고는 있지 않다. 동작주체의 행동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유

지·방임>과는 다르다. 그러나 <허가부여>형에서는 허가를 해줌에 의해, 소극적이라도 동작주체의 행동·변화의 발생의 최종결정권을 사역주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묵인>형은 동작주체의 행동·변화의 발생에 있어서, 사역주체의 사역행위가, 보다 실질적·실효적(효과적)이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지·방임>에 가깝다.

<용인>과 더불어<방치>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해 보자. <용인><방치>에 있어서는, 동작주체가 실현되는 행동 변화는 동작주체의 의지에 의해, 완전히 자기제어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역주체는 동작주체의 의지에 호 소하여, 동작주체의 의지를 거쳐 행동ㆍ변화를 야기 시킨다는 간접적인 사역행위에 서는, 행동 변화를 동작주체 상에서 야기 시킬 수가 없다. 행동 변화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무언가의 사태를 遂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 인><방치>는, <원인 제공>과는 달리, 동작주체의 행동 발생의 계기가 동작주체에 있다. 따라서 동작주체의 행동 변화는 사역주체로부터의 적극적인 서포터가 없어 도, 사역주체가 저지만 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있는 기세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은 <방치>에 있어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사역주체의 사역행위가 간접적인 것이 아닌, 무언가의 실질적인 동작을 포함한 직접적인 것임 에 따라, <원인제공>은 <강제>와는 명확히 다르다. 이에 비해, 사역주체로부터의 사역행위가 실질적 ·직접적인 것이라 해도 사역주체로부터 사역행위가 동작주체의 행동 변화의 실현에 적극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방치> 및 <용인>의 일부(<수용(受け入れ)>型)에서는 사역행위의 직접성과 간접성의 차가 그다지 크지 는 않다. 따라서 <용인(수용型)><방치>와 <허가(묵인)><방임>의 差는 <원인 제 공><용인(援助型)>과 <강제><허가(許可付与型)>의 差만큼 크지는 않다.

以下에서, <용인><방치>의 實例를 들어 보자. 우선 <용인>의 경우부터 보면, <용인>은 동작주체의 행동·변화의 발생의 계기가 동작주체의 희망과 동작주체를 포함하는 사태전반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직껏 행동·변화는 실현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행동의 계기가 동작주체의 희망과 동작주체를 포함하는 사태전반에 있는 것이지만, 사역주체로부터 힘을 빌리지 않으면, 행동이 실현되지 않는 〈援助〉型의 〈용인〉과, 사역주체가 저지하지 않고, 동작주체의 희망과 동작주체를 포함하는 사태전반의 진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행동이 실현되는 〈수용〉型의 〈용인〉이다.

= 援助

우선, <援助>型의 <용인>부터 보자. 以下, 實例를 들어 보자.

- (76) ご隠居様は、~息子が出所して来ると知り合いの人に頼んでプレス工場に就職させてくだすった。 (虹色)
- (77) 「お父さんが昔ながらのやり方を曲げずに、大道将棋に沈頭していられたのも、そのおやじさんの後ろダテがあればこそですし、わたしをマッサージ師として独立させてくださったのも…」 (瀬戸)

등이, 긍정형의 「- (サ) セル」을 취한 <援助>型이다. 이에 비해,

- (78) 派手な着物と帯、濃く化粧したゲイ・ボーイたちは懸命に愛きょうをいっとき振りまき、一刻 も英子を飽きさせない。(公開)
- (79) 「おれの飛行機は絶対に飛ばないよ。一生懸命、おれを死なせまいとしてくれているんだ。」(神風)

는, 부정형의 「- (さ) せる」가 나타나는 <援助>型이다. <援助>型은, 행동의 계기가, 동작주체의 희망과 동작주체를 포함하는 사태전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역주체로부터 실질적인 사역행위가 없으면, 행동이 동작주체 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서는, 단순히 「就職してよろしい」과 「飽きるな」라는 말만으로는 동작주체 상의 행동・변화를 성취할 수 없다. 행동・변화가

실현되기 때문에, 사역주체는, 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행위를 행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援助>型의 용인은 <허가부여>型의 허가와의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원인제공>에 가깝다. (76)(77)는, 동작주체의 「就職したい」「独立したい」라는 희망의 실현에 대한 용인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援助를 나타내고 있으며, (78)(79)는 따로 떼어두면, 「飽きてしまう」「死んでしまう」라는 동작주체의 행동 실현의 추세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다 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예문도 형식은 긍정형이지만, 의미적으로는 否定形의 형태이다.

(80) 「ざまあみやがら。そう簡単に勝たせるか!」 (葛飾36巻)

= 수용型

계속해서, <수용>型의 <용인>에 대해서 보자. 예를 들면,

- (81) 親はなにも愛していないわけではないが、子どもをあまえさせたり、相手になってやったりするようなことができる暮らしではないんですね。 (藤原審爾「死にたがる子」、佐藤 1986より)
- (82) たが兵藤になぜ死ぬのか教え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なにも知らずに死なせては復讐に ならないからだ。 (神風)

등이 <수용>型의 例이다. <수용>型은 <용인>이므로, 즉 <방치>가 아니므로, 동작주체의 행동 발생의 계기는 동작주체의 희망과 동작주체를 포함하는 사태전반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행동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援助>型과는 달리, 그대로 방치해두면(저지・거부하지 않으면), 경과의 진전에 의해행동이 실현된다는 경향이 있다. (81)와 (82)에서는, 사역주체는 동작주체의 「あまえる」「死ぬ」라는 희망과 상황의 진전을 받아들여 주는 것만으로 좋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수용>型의 <허용>은, 한 단계 더 <방치>에 근접

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사역행위인 부분, 무언가의 행위의 수행을 필요로 하는 〈援助〉型과 저지를 하지 않는다는 〈수용〉型과의 차이는, 간접적인 사역행위의 수행 타입의 〈허가부여〉型과 비저지 타입의 〈묵인〉과의 차이에 비해, 그 차이는 크다 할 수 있다.

1.3. 방임

CHOSU

방임의 <유지·방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유지·방임>은, 행동 <유지·방임>은, 행동의 계기·근원이 동작주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역주체의 사역행위에 앞서, 이미 동작주체의 행동·변화가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타입인 것이다. 따라서 사역주체의 사역행위는 행동·변화의 續行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발생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동작주체의 행동·변화가 이미 실현되어 있다하여도, 이것은 사역주체의 사역행위에 앞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화시에 이미 행동·변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83) 余計に苦労はしまい。彼には彼のしたいようにさせておくほうがいい。(復讐)
- (84) 「ごらんの通り、このありさまです。 すごいでしょう。」 「ここまで好き勝手にさせておく 教師の方がすごいよ。」 (葛飾34巻)
- (85) こういうときは、まず、相手に言いたいだけ言わせて、ある程度まで冷静さをとり戻すまで 持ってから、こっちの質問をするに限る。(復讐)
- (86) 十四日までの宇治市教委の調べでわかったもので、教師は「けがをした子が殴った子に 非暴力を諭しているように思えたのでそのままやらせた」と言っている。(毎日 1985.3.15朝刊)

등이, <유지·방임>의 예이다. <유지·방임>에는 「싫어도 내(화자본인)가 됐다고 할 때까지 그냥 하게 내버려둬!」와 같이 동작주체의 의지를 무시한 <유지>형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처럼, 동작주체의 의지를 배려한 <방임>형이 있다¹⁷⁾. 그렇다하더라도 동작주체의 의지를 무시한 <유지>형의 <유지·방임> 의사역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은, <강제>와 <허가><유지·방임>을 나눈 것이, 기존에 일컬어지고 있는 동작주체의 의지를 무시할 것인지, 존중할 것인지에 있는 게아닌, 행동의 계기가 사역주체에 있는지, 동작주체에 있는지에 의해 나눠질 것이다.

다음으로 <방치>의 성립조건은 <방임>과 같으며, 이미 실현 사태에 대한 사역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방치>의 경우는 사역주체와 동작주체가 이미 실현사태에 대하여 본의가 아니라고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뉘앙스가 첨가된다는점에서 <방임>과 구별된다.

<방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자.

- (87) 怒りたい奴には勝手に怒らせておけ!
- (88) おれはだんだんこの上品なやつらに腹がたってきた。なぜ、正面きって増悪と嫌悪の視線でおれたちをみすえないのだ?なぜ、おれたちをのさばらせておくのだ? (アダム)

등이 <방치>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이다. <방치>에 있어서는, 동작주체의 행동·변화는, 사역주체의 사역행위에 앞서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87)(88)에서는 동작주체의 행동은, 사역주가 저지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고 있을 뿐이고, 續行해 간다. 따라서 <방임>과 다르게, 사역행위의 간접성·직접성의 차이가 있지만, 사역행위가 적극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이 兩者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1.4 원인

¹⁷⁾ 注: 다만, <유지·방임>이 이와 같이 항상 확연하게 양자로 나눠지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유지>형과 <방임>형이 동일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83)~(86)의 例는 모두 <방임>형이다. 동작주체의 의지를 무시한 <유지>형은 극히 드물다고 여겨진다.

원인을 나타내는 사역표현은 사역주체에 [사물·사건]을 취하는 것이다. 原因에 있어서는 사역주체가 사람인지 사물·사건인지 또는 사람의 동작이 의지적인 것인지 무의지적인 것인지로는 하위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역표현은 사역주가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동작주체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사역주체는 동작주체가 감정적으로 혹은 내면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결과를 야기 시키는 원인적인 존재임을 나 타낸다.

- (89)「君はすごく僕を落ち込ませる」と僕はいった。 (ダンス(下))
- (90) あなたは私のことを失望させたくなって、独身になりすましているんじゃないのかな。(愛)
- (91) 何も義務的につきあっているわけじゃない。どうしてだろう?歳もこんなに違うし、共通する話題だってろくにないのに?それはたぶん君がぼくに何かを思い出させるからだろうな。ぼくのなかにずっと埋もれていた感情を思い起こされるんだ。(ダンス(下))
- (92) 花はしおれていたが、その赤い色は生々しく、なにか魚の腸めいた生臭さを感じさせた。 (幻)
- (93) 今見た妻のなやましい後ろ姿は、また村井を連想させた。 (氷点(上))
- (94) 美代子は人一部独立心が旺盛であり、ときにはそれが男を苛立たせることもあるのを、自分では気がついていなかった。(赤(下))

(89)(90)(91)는 사역주체가 유정물이고 기본동사가 감정·인식 동사인 경우의 原因 사역에관한 예문이나 (92)(93)(94)같이 무정물의 사역주체가 감정·인식 동사를 취 하더라도 原因사역을 나타내며 의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1.5. 원인제공

<원인제공><용인><방치> 및 <무의식적인 원인제공>이라는 타입의 사역표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원인제공><용인><방치>와, 이미 서술한<강제><하가><유지·방임>과의 차이는, 사역주체의 사역행위의 대상인 동작주체가실현하는 행동 · 변화가, 동작주체의 의지에 의해 제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의해 나타난다. <강제><허가><유지·방임>이, 동작주체의 의지에 의해 제어 가능한 행동·변화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원인제공><용인><방치>는, 동작주체의 의지에 의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행동·변화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원인제공 및 무의식적인 원인제공

우선, <원인제공>를 나타내는 사역표현을 <용인><방치> 및 <무의식적인 원인제 공>과의 상호 관계를 생각하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 원인제공>에서는 동작주체의 행동·변화가 비자기 제어적인 것에 의해, 동작주체의 의지에 사역행위를 경유시켜, 행동·변화의 발생을 근원으로 하는 간접적인사역행위에서는, 동작주체에 행동·변화를 발생시킬 수가 없으며, 동작주체의 행동·변화의 발생이 직접적인원인이될 수있는, 언동이 필요하게된다.다시말하면, <원인제공>의사역주체는 동작주체의행동·변화의발생에 직접적으로관련이었다는원인적사태를만드는者이다.동작주체의행동·변화의발생에 직접적인원인적사태를만드는者라고하는점에서, <원인제공><용인><방치><무의식적인원인제공>은 공통되는점이다.이러한의미에서,서로 닮은점과다른점을가지고있으면서 <원인제공><방치><무의식적인원인제공>은 같은유형으로취급되어진다.

<원인제공>과 <용인><방치>를 나누는 것은, 동작주체가 실현하는 행동의 발생계기에 있다. 행동의 계기가 사역주체에 있는 것이 <원인제공>이며, 계기가 동작주체에 있는 것이, <용인><방치>이다. 또 <원인제공><무의식적인 원인제공>을다른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사역주체가 의식·의도적으로 사역행위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무의식·비의도적인 사역행위인지에 의해 분류된다. 의식적으로 사역행위를하는 것이 <원인제공>이고, 무의식적인 사역행위가 <무의식적인 원인제공>이다. <원인제공><무의식적인 원인제공>은 차이가 크지 않고, 사역주체로부터 사역행위

가 단순히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에 관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무의식적인 원인제공>은 비의도적인 사역행위를 나타냄에 따라, 본래 그러한 의도가 없이 행해진 사역주체의 행위를 나중에, 결과로서 동작주체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인 원인제공>을 <원인제공>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이다. 의식적인 사역행위를 가지는 <원 인제공>에서는 동작주체의 행동 변화가 동작주체의 의지에 의해 제어 가능한 것 이면, 동작주체의 행동 변화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사태를 직접 형성할 수 있는. 언동을 사역주체가 행할 필요가 없다. 동작주체의 행위 · 변화가 자기 제 어적인 것에 의해, 사역주체는 동작주체의 의지에 호소할 뿐 간접적인 사역행위를 행하면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동작주체의 행동 · 변화가 자기 제어적인 것일 때는 의식적인 사역행위의 타입에서는, 사역주체는, 간접적인 사역행위의 어떤 일을 하 는 사람이고, 원인적사태의 직접적인 만드는 者로는 될 수가 없다. 이에 비해, <무 의식적인 원인제공>에서는 사역주체의 사역행위가 무의식적인 것임에 따라. 동작 주체의 의지에 호소하여, 사역행위를 하는 것을 사역주체의 의식 중에서 꾀할 수 없고, 동작주체의 행동ㆍ변화가 동작주체의 의지에 의해 제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제어 가능한 것에서도, 간접적인 사역행위는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의식적 인 원인제공>에서, 사역주체는 동작주체의 행동·변화가 제어가능하든, 제어불가능 하든 모두 그것들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적 사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이 차이는,

- (95) 僕はコーヒー代を後輩に払わせた。
- (95') 財布を忘れて、僕は後輩にコーヒー代を払わせてしまった。

(95)(95')의 각각의 사역표현이 나타내는 의미적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 의식적인 사역행위를 나타내는 (95)에는 직접적인 사역행위의 <강제>가 되며, 무의식적인 사역행위의 (95')에서는 사역주체는, 명령 등의 언어행위에 의한 동작주체의 행동을

발생시키는 쪽이 아닌, 행동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적 사태를 만드는 者로서 나타내고 있다.

1.6. 조작

조작은 [사역주체는 사람, 동작주체는 사물, 사역의 행위가 의식적, 기본동사가 무의식적, 無對]라는 요인의 조합을 낳고 있는 타입이다. 無對란 대응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96) 彼は、椅子を一回転させて、立ち上がった。

와 같은 문장이 이러한 類의 사역표현의 타입에 속한다.

이어서 <무의식적인 조작>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역주체는 사람, 동작주체는 사물, 사역의 행위가 비의식적, (기본동사가 무의지적), 동작의 계기가 사역주체]라는 조합을 낳고 있는 타입이다.

여기에서는 操作을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분리 가능한 소유물인 경우와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분리 불가능한 소유물인 경우, 두 타입으로 나누어서 고찰 하기로 한다.

A.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분리 가능한 소유물인 경우

(97) 息子がいつかのようにその荷物を運搬車に乗せて車を軋ませながら運んでいきました。

(車)

- (98) そのアメリカ人はアンチオーダークリームを 強くにおわせて、私の妻のために、~台所裏 の路地で七輪の火をうちわでたきつけてくれた。(家)
- (99) 黒木は車をスタートさせた。(セーラー服)

와 같은 문장이 操作을 나타내는 사역표현의 예이다. 사역주체가 대상인 동작주체에 물리적·직접적으로 사역행위、대상인 동작주체를 행동으로 끌어들인다든지 게다가 상태변화를 준다든지 한다. 조작은 <원인제공>의 유형과 비교해보면 사역주체의 사역행위가 한층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B.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분리 불가능한 소유물인 경우

동작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명사가 어떠한 의미에서든 사역주체와 분리 불가능한 소유물인 경우이다. 이것을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유형과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 두 타입으로 세분 할 수 있다.

- [1]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유형
- (100) 私は無意識のうちに、腰を浮かせていた。(直線)
- (101) するとそこには、十二、三の美しい女の子が目をうるませて立っていました。 (月夜と)

사역행위가 무의식적인 조작이다.

- [2]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
- (102) その点さすがに神津氏はしっかりしていた。一生懸命に部屋の隅々まで、射るような視線を走らせている。 (妖婦)

2. 구문적 관점에서의 하위유형

일본어의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는 할 수 없으나, 수동의 하위유형으로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의 구별에 대응하는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의 구별도 문법론상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수동의 하위유형으로서의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능동문의 동사의 동작주 이외의 소극적 관여자를 주어로 해서 해당 사태를 표현하는 수동문을 만들면, 능동문에서의 동사가 해당사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의 필수 성분, 즉 사태의 직접적 관여자를 주어로 하는 수동문을 「직접 수동」이라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을 주어로 하는 수동을 「간접수동」이라고 한다.

수동의 하위유형을 구문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직접수동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03) a. 太郎が次郎をなぐった。 (등 동 문)

b. 次郎が太郎になぐられた。 (직접수동문)

구문적으로는 a문장의 목적어가 b문장의 주어가 되고, 동시에 a문장의 주어가 b문장에서 「に格」으로 나타나게 되어, 능동문의 필수논항 (が、を) 과 수동문의 필수논항 (が、に) 의 증감이 없다는 구문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의미상으로는 능동사 (なぐる) 에 의해 수동문의 주어(次郎)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특징을 보이는 수동문을 직접수동이라 한다. 한편, 간접수동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04) a. 子供が泣いた。(기본문)

b. 母は子供に<u>泣かれた</u>。(간접수동문)

구문적으로는 기본문인 a문장의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が)에 비해 수동문인 b 문장의 수동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が、に)의 수가 하나 증가한다고 하는 구문 적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의미상으로는 수동문인 b문장의 주어에는 기본문에서는 존

재하지 않던 제3자가 주어로 오고, 주어가 기본문이 나타내는 사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적인 특징을 보이는 수동문을 간접수동이라 한다.

일본어의 수동은 이상과 같이 구문적, 의미적 특징의 차이에 의해 「직접수동」과「간접수동」으로 분류된다. 이와 흡사하게 일본어의 사역 또한 구문적, 의미적인특징의 차이에 따라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역을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의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해서 기술한 연구로는 井上(1976), 益岡(1987), 권(1997), 丁(2007)등이 있으나, 이들 선행연구 중 益岡(1987), 丁(2007)이 수동의 구문적, 의미적 하위분류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한 연구이므로,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8).

2.1. 간접사역

益岡(1987)에서는 수동과 사역의 상이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형적인 수동문(직접수동문) 의 경우는 능동문의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이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반면, 전형적인 사역문의 경우는 다음 같은 사역문을 예로 들어, 기본문의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이 사역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사역문을 가접사역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105) (田代は) 助手の木崎に、……望遠レンズを用意させた。
- (106) 助手の木崎が望遠レンズを用意した。

즉, 사역문인 (105)에서의 주어(사역주체)는, 기본문 (106)의 동사「用意する」가 요구하는 논항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역문을 간접사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1997)은 일본어의 사역 형태소 「させる」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의미유 형이 존재하여, 하나는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직접적인 동작을 하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¹⁸⁾ 注:사용빈도 및 의미적 전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동에서는 「직접수동」이 「간접수동」에 비해 우세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역의 경우에는 반대로 「간접사역」이 「직접사역」에 비해 우세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사역의 우세한 유형인 「간접사역」에 대해 먼저 논하기로 한다.

- 사역주의 간접적인 지시 등에 의하여 피사역자로 하여금 目的하는 사태를 達成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형이라고 기술하고 후자와 같은 유형을 간접사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 (107) はなこが こどもに ミルクを のませた。
 - (108) a. はなこが こどもに (めいじて) ミルクを のませた。

b. はなこが こどもに (ぼにゅうびんで) ミルクを のませた。

た。 사역으로 파악되는 경우와 (108)b

즉 사역문 (107)은 경우에 따라서는 (108)a와 같이 간접사역으로 파악되는 경우와 (108)b와 같이 직접사역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역동사가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의 의미・용법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간접사역만을 나타내는 사역동사로 다음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はこばせる、なぐらせる」 등의 사역동사를 들고 있다.

(109) 太郎が うんてんしゅに かばんを 運ばせた。

丁(2007)은,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의 분류에 관해 기본적으로 益岡(1987)의 견해를 답습하면서, 구문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간접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10) 子供が 勉強した。
- (111) 母が 子供を 勉強させた。
- (112) 彼女が 帰った。
- (113) 部長は 彼女を 帰らせた。

(111)(113)과 같은 유형의 사역문은, 기본문(비사역문)에 비해 필수논항이 하나 증가한다고 하는 구문적인 요인에 의해 간접수동문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생산성 또는 사용빈도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사역의 중핵적인 유형이다. 간접사역문은 간접 수동문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형태적으로는 기본동사에 「-させ」라고 하는 접사를 접속시킴에 따라 규칙적인 어형변화가 일어나며, 그로 인해 구문적으로는

기본문과 사역문 사이에 격의 교체가 행해진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직접사역과는 달리 대응을 이루는 기본문에 비해 필수논항이 하나 증가한다고 하는 구문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구문적 특징은 의미적인 면에도 반영되어, 의미적으로는 기본문의 사태 성립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역문의 주어(사역주)는 기본문이 나타내는 사태를 성립시키기 위해 지시 또는 명령을 할 뿐으로 사태의 성립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적 특징을 갖는 유형을 간접사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2.2. 직접사역

益岡(1987)에서는 기본문의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이 원동자(사역주)로서 기능을 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역을 「직접사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 (114) 彼女の申し出は、自分をひどく喜ばせた。
- (115) 自分は彼女の申し出をひどく喜んだ。

다시 말하면, (114)와 같은 유형의 직접사역문의 경우는, 위에서 논한 간접사역문의 경우와 달리, 대응을 이루는 (115)의 논항인 「彼女の申し出」가 사역문의 주어(사역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사역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권(1997)은 상기의 (108. b)와 같은 유형의 사역문을 직접사역문으로 파악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른바 「복합 타동사」로 불리우는 「きせる、みせる」등과 같은 일부의 동사에 의해형성되는 문장도 직접사역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 (116) はなこが こどもに ゆかたを きさせた。
- (117) はなこが こどもに ゆかたを きせた。

따라서 (116)과 같은 유형은 간접사역으로, (117)과 같은 유형의 타동사로부터 형성되는 유형은 직접사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丁(2007)은 구문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직접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본문(비사역문) 동사의 필수 논항이 대응을 이루는 사역문의 사역주로서의 참가여부에 의해, 사역주로서 참가하는 「직접사역문」과 참가하지 못하는「간접사역문」으로 나누어, 이 중 「직접사역문」은, 기본적으로 대응을 이루는 두 문장사이에 필수 논항 증감의 有無에 근거하여, 논항이 증가하는 다음 (118)과 같은 유형을「의미적직접사역문」으로, 논항의 증감이 없는 (119)과 (120)과 같은 유형을 「통어적직접사역문」으로 나누고 있다.

- (118) 太郎が次郎に好きなだけ(自分を)殴らせた。(3項)[意味的直接使役]
- (118') 次郎が太郎を殴った。(2項)
- (119) 小さな心遣いが人を喜ばせる。(2項)[統語的直接使役]
- (119') 人は小さな心遣いに喜ぶ。(2項)
- (120) 多額のローンが山田を悩ませている。(2項)[統語的直接使役]
- (120') 山田は多額のローンに悩んでいる。(2項)

(118)을 예로 든 「의미적직접사역문」이란, 의미적으로는 사역주가 기본문이 나타내는 사태의 성립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만, 구문적으로는 대응을 이루는 기본문에 비해 사역문이 필수 논항의 수가 하나 많은 유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의미적직접사역문」은 구문적인 면에서 「직접사역문」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인해, 의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구문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형인 (119), (120)과 같은 「통어적직접사역문」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접사역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직접사역문은 구문적인 면에서 보면, 대응을 이루는 기본문에 비해 필수 논항이 하나 증가하는 간접사역문과 달리, 대응하는 기본문(원동문)에 비해 필수논항의 증감이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도 대응을 이루고 있는 두 문장의 지적 의

미가 동일하며, 동시에 사역문의 주어(사역주)가 원동문의 사태성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직접사역문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류가 인간의 심리상태·정신작용·감정을 나타 내는 동사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간접사역에 비해 사역동사 형성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권(1997)에서 직접사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着せる、見せる」등과 같은 이른바 복합타동사에 의해 형성되는 문장은 사역문이 아닌「사역적 타동사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예를 들어 「着せる」를 사역동사라 하면 「着せさせる」라고 하는 형태로 사역동사를 만들 수 있어 이때의 「着せさせる」는 「이중사역」이 된다. 일본어의 경우 이와 같이 동일한 문법적의미를 지니는 형태소가 하나의 술어 안에 이중으로 쓰이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HOSUN UNIVERSITY 194 IV. 일본어 사역동사의 성립여부

사역조동사 '(さ) せる'의 동사와의 접속관계에 있어서 모든 동사와의 접속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어의 동사 가운데는 '(さ) せる'와의 접속이 불가능한 동사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 (121) a. 木がある。→*木をあらせる。 (* あらせる)
 - b. 彼にお金が要る。→*彼にお金が要らせる。
 - c. 彼女にその着物が似合う。→*彼女にその着物を似合わせる。
 - d. 助手に運転ができる。→*助手に運転ができさせる。
 - e. 彼に中国語が話せる (コト) 。 $\rightarrow *$ 彼を (に) 中国語を話させる。
 - f. このナイフはよく切れる \rightarrow *このナイフを (に) よく切れさせる。
 - ※ 앞의 예문은 寺村秀透夫 (1982) 에서 인용

이들 동사는 수동(受身)을 만들 수 없는 동사들로서, 사역대로 만들었을 때도 역시 비문법적인 문이 되어 버린다¹⁹⁾. 上記 예문(a) ~ (b)는 상태동사적인 성격이 강한 동사들이고, 예문 (e), (f)는 가능태의 형태를 취한 소동사들이다. 그리고, 또 寺村(198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意志性이 없거나 저절로 그렇게 되거나 저절로 그렇게 하는 동사종류 중의 일부도 사역문이 되면 부자연스러워진다고 한다²⁰⁾.

- (122) a. 物価が上がる → ?物価を上がらせる
 - b. 穴がふさがる → ?穴をふさがらせる

 - d. 雨がやむ → ?雨をやませる
 - e. 賭け事を嫌う → ? 賭け事を嫌わせる

¹⁹⁾ 三上章(1963)에 의하면 이처럼 受動을 만들 수 없는 動詞를 所動詞라 한다. 三上는 動詞를 受動이 되는 가 안되는가 하는 것으로 動詞를 二分하고, 受動이 되는 動詞는 能動詞라고 하였다.

²⁰⁾ 寺村는 이들 동사를 所動詞의 範囲에 넣어야 좋을지 어떨지 파악이 잘 안 되는 動詞들이라 하고 있다.

CHOSUN UNIVERSITY 1946 f 供を込むす

f. 彼をうらやむ → ? 彼をうらやませる

그러나 소동사라 불리는 동사와 비의지성 동사 중에는 사역문이 되어도 비문법적 이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고 있다²¹⁾.

- (123) a. 尻尾が見える。 → 尻尾を見えさせる。
 - b. 低音だけが強く聞こえる。 → 低音だけを強く聞こえさせる。
 - c. 香水の匂いがする。 → 香水の匂いをさせる。
- (124) a. 雨が降る。 → (梅雨前線山間部) 雨を降らせる。
 - b. 花が咲く。 \rightarrow (太郎さんが) 花を咲かせる。
 - c. 卵がくさる。 \rightarrow 卵をくさらせる。
 - d. カビが生える。 \rightarrow カビを生えさせる。
 - e. 眼が光る。→ 眼を光らせる。
 - f. 用がする。 → 用をすませる。
 - g. ふところから匕首がのぞく。→ ふところから匕首をのぞかせる。
 - h. おのぶの顔は洗ったようにさっぱりとし、あいそのいい微笑を浮かべた口許から、八中 歯を覗かせていた。(山本周五郎《さぶ》)

예문 (123)의 동사들은 감각에 관한 동사들이고 예문 (124)의 동사들은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못하는 자동사에 '(さ) せる'가 접속한 경우이다. 이처럼 일본어 의 동사가 사역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寺村는 지적하고 있다²²⁾. 즉, 寺村는, 첫째로 상태를 나 타내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사역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적인 조건이고, 둘째로 무생물을 주격보어로 취하는 동사가 대립하는 타동사를 가지지 못하므로 사역형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는 일본어의 어휘구조상의 조건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²³⁾.

²¹⁾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東京: くろしお出版, 1982), P. 291 · 292.

²²⁾ 寺村秀夫, 전게서, P. 292 · 293.

1. 사역이 성립되는 동사

사역과 마찬가지로 態의 범주에 속하는 일본어 수동의 경우는, 우리말이나 영어의경우와 달리, 타동사뿐 만 아니라 자동사에 의해서도 수동이 성립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말에 비해 일본어의 수동은 생산성이 높은 언어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모든 동사에 의해 수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지동사에 한해서 수동이 성립되고, 반대로 무의지동사(이른바 소동사)에 의해서는 수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수동의 성립여부와 동사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사역의 경우는 어떠한 유형의동사에 의해 사역을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유형의 동사의 경우 사역의 성립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를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辭典』에 나오는 728개의 동사를 대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 분석해보기로 한다.

1.1. 자동사 사역

【표-4】 자동사 사역 성립동사

動詞類	例 文	備考
恐れる	父は変な声を出して子供を恐れさせた。 (まれ)	
生まれる	なんとか新しい体制を生まれさせた。	
生きる	子供たちを力一杯生きさせた。 (不可ある)	
売れる	彼を売れさせるにはもっと宣伝する必要がある (かなり不自然)	
落ちる	あまり協力してやれなくて、息子を試験に落ちさせた。	
教わる*	子供にピアノを教わらせる [かなり不自然、「習わせるは自然」]	
降りる	子供を台の上から降りさせた。 (不可ある)	
隠れる	子供を隣の部屋に隠れさせた。	
重なる	全員写すために前の人と後の人を重ならせた。 (まれ)	

^{23) &#}x27;す・さす'도 사역의 조동사로 인정하는 입장도 있다. 吉田金彦(1971)는 '書かす'와 '書かせる', '咲かす'와 咲かせる', '飲ます'와 '飲ませる' 등에 있어서 문법적인 意義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おどろかす', '動かす', 'とばす' 등의 경우는 사역, 타동의 양쪽으로 다쓰인다고 하였다. 한편, 寺村(1982)의 경우, '行かせる、のませる、たべさせる、させる、こさせる' 등에 대한 '-(s)ese-'의 마지막 'e-'가 탈락된 '行かす、のます、たべさす、さす、こさす' 등을 사역형의 短縮形이라 하고 있다.

2						
固まる						
変わる	部下に部署を代わらせた。					
消える	彼{に/を}消えさせる・火を消えさせてしまった。					
沸く*	子供にお茶を沸かさせた。					
苦心する	学生にもう少し苦心させよう。 (まれ)					
崩れる	ささいな事が二人の信頼関係を崩れさせてしまった。 (まれ)					
曇る*	息で窓を曇らせる・その知らせに一瞬顔を曇らせた。					
降る	雪を降らせる設備があるそうだ。					
燃える	消火活動が遅れて、家を燃えさせてしまった・みんなをもっと燃えさせよう。					
転ぶ (物)	子供 {に/を} 転ばせた。					
壊れる	彼にまかせて砂山を壊れさせてしまった。 (まれ)					
混乱する	彼の一言がみんなを混乱させた。					
咲く	老人は枯木に花を咲かせた・桜の木がいっせいに花を咲かせた。					
冷める	ささいなことが二人の関係を冷めさせてしまった。 (まれ)					
茂る	街に縁を茂らせる運動が進められた。					
失礼する	家内に先にパーティを失礼させた。					
閉まる						
過ぎる	弟に学校の前を過ぎさせた・むざむざ結婚適齢期を過ぎさせてしまった。					
済む	用事を済ませる					
<i>+</i> -	弟子を一人前に育たせる・そういった考え方を育たせる基盤が日本にはな					
育つ	Vi a					
倒れる	反対派をあやつって政府を倒れさせた。					
15.3	廊下に子供たちを立たせる・よく泡を立たせてからコップに入れる・					
立つ	子供に看板を立てさせた。					
縮む	洗濯してセーターを縮ませてしまった。					
散る	催涙弾で群衆を散らせた・幹をゆすって桜の花を散らせた。					
疲れる	子供をあまり疲れさせてはいけない。					
着く	子供たち {に/を} 食卓につかせた。					
到着する	時間までには代理人を到着させます。					
伝わる	子供に屋根を伝わらせる・情報をあちこちに伝わらせる。					
溶ける	角砂糖を水の中で解けさせた。					
飛ぶ	紙飛行機を飛ばせた・編み目を飛ばせてしまった。					
濡れる?	子供を雨にぬれさせてしまった。(まれ)					
残る	残業に部下を残らせる・料理をたくさん残らせてしまった。					
生える	この薬は髪の毛を生えさせる。					
始まる?	議長は会議を早く始まらせた。 (まれ)					
	強い高気圧が台風を日本からハズレさせた・ねらいをハズレさせてしまった。					
ハズレる?	(他はまれ)					
÷//) 2 2	パイロットは飛行機を陸から離れさせた・彼の気持ちを私から離れさせてし					
離れる	まった。					
冷える?	二人の関係を冷えさせてしまった・足腰を冷えさせてしまった。 (まれ)					
光る	靴を磨いて光らせる ('星を光らせる 'のような場合は不可)					
混ざる?	年長の仲間に混ざらせて勉強させる。 (まれ)					

迷う?	私が勝手に先を進んで、彼を道に迷わせてしまった。 (まれ)
回る	部下に得意先を回らせる・風で風車を回らせる。
燃える	消火活動が遅れて、家を燃えさせてしまった・みんなをもっと燃えさせよう。
漏れる?	修理をしなかったため、タンクから油を漏れさせてしまった。 (まれ)
破れる?	決勝戦で破れさせた・水道管を破れさせてしまった。 (まれ)
緩む?	子供の笑い声に父はふと表情を緩ませた。 (まれ)
揺れる?	彼を揺れさせてしまった。 (まれ)
汚れる	彼女を汚れさせてしまった。
割れる?? (物)	
閉じる*	カードマンに門を閉じさせた。

1.2. 타동사 사역

【표-5】 타동사 사역 성립동사

動詞類	例 文	備考
落とす	彼にスピードを落とせる・そこまでは身を落とせない。 (不可ある)	
習わせる		
習う	娘にバイオリンを習わせる。	
降ろす	部下に荷物を降ろさせた。	
隠す	この箱なら人間ひとり隠せる。	
重ねる		
固める	弟に荷物を部屋の隅に固めさせた・中隊に指令部の守りを固めさせた。	
乾かす*	母は娘にぬれた服をストーブで乾かさせた。	
変える	生徒に席を替えさせた・看護婦に包帯を換えさせた。	
消す	弘は順子にクーラーを消させた。 (不可ある)	
決める	なかなか代表者を一人に決められない。	
裂く	先生は生徒たちに和紙をたてに細く裂かせた。	
刺す		
建てる	大工にマンションを建てさせる。	
溜める	子供に記念切手をためらさせた。	
点ける	母は娘にテレビをつけさせた。	
潰す	私は息子にダンボール箱をつぶさせた。	
照らす	監督は照明係に足元ばかり照らされた。	
解く:紐	母は真由美に荷物を解かせた。	
鳴らす	子供にベルを鳴らさせた。	
減らす	彼は妻に仕事を減らさせた。	
沸かす	子供にお茶を沸かさせた。	
崩す	弘にレンガの山を崩させた。	

降る	雪を降らせる設備があるそうだ。	
冷ます	母親は娘にご飯を冷まさせた。	
	私は友人が万引きしたことを警察に知らせた・彼に親のありがたみを少し知ら	
知る	せてやろう。	
7,11.0	学級委員に命じて子供たちに遠足の延期を知らさせた。	
757 L L	V 35 2 17 1 1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済ます	父親が子供に手続きを済まさせた。	
育てる	子供たちに花壇で花を育てさせた。	
倒す	子供たちに木を倒させた。	
立てる	子供に看板を立てさせた。	
縮める	子供にテレビを見る時間を縮めさせた。	
散らす	医者に薬で痛みを散らさせた。	
伝える	息子に用件を伝えさせた。	
溶く: 氷	子供に絵の具を溶かせた。	
飛ばす		
治る??:)	
病気	ノイローゼを治らせるのは難しい。	
願う?	神官に皆の幸せを願わせる。(まれ)	
残す	彼らに留守番に子供を残させた・弟に悔いを残させてしまった。	
離す	IX-Ne 田 g 田 e g M e g X e e re - An e l m e r e g X e e e e e e e e e e	
同す	ねじを左は回させた。	
7	刑事は部下に命じて、目撃者に容疑者の写真を見せさせた・彼女に自分	
見せる	川事は即丁に叩して、日季有に谷衆有ツ与具で兄せてせた。似女に日ガ	
	自身を美しく見せさせた。	
燃やす	彼に紙を燃やさせた。	
汚す	順子に姉の服を汚させた。	

2. 사역이 성립되지 않는 동사

2.1. 자동사 사역

【표-6】 자동사 사역 불성립동사

	動	詞	類	
乾く、 裂ける* 、 刺さる* 、	建つ*、	溜まる*、点く*、	潰れる*、詰まる*、照る*	解ける
* 、無くなる* (物) 、鳴る*	、減る*	etc.		

CHOSUN UNIVERSITY 1946_{2.2.} 타동사 사역

【표-7】 타동사 사역 불성립동사

動詞類

憎む?? (不自然)、よす?? (不自然)、嫌う*、くださる*、くれる*、連れる etc.

이상에서는 사역의 성립여부를 기본동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수동의 경우와는 달리, 사역은 일부 자동사뿐 만 아니라, 일부 타동사에 의해서도 성립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사역이 성립되지 않는 일부 자동사 및 타동사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 부류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v .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어의 사역 표현 전반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우선 일본어 사역표현의 의미·용법을 고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일본어에 있어서 하나의 문법 범주로 인정되는 사역의 기본적인 특징, 즉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인 면에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제 형태의 특징에 근거하여, 본고 연구의 중심이 되는 제3장에서는 일본어 사역표현의 하위유형을 실례분석을 통해 상세히 세분화 시켜. 각각의 하위유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징 및 각각의 하위유형 사이에 보여 지는 유사점과 상이점 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의미적인 관점에서 본 사역표현의 하위유형의 세부타입으로 는 사역표현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인 「강제(지령)」의 용법을 가지는 유형을 비롯 해, 사역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고찰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 「허가·묵인」、「방임」「원인」을 비롯하여. 그 외의 유형으로 「용인」「방치」 「무의식적인 원인제공」「무의식적인 조작」「원인제공」등 여러 가지 하위유형 이 존재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들 하위 유형 중, 「무의식적인 조작」의 용법을 가진 하위 유형의 경우, 전자는 동작주체(비정물)가 사역주의 비분리적인 소유물인 유형과, 분리 가능한 소유물인 유형으로 세분됨을 논했다. 또한 동작주체가 사역주 의 비분리적인 소유물인 유형은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유형과 동작주체가 사역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다 시 세분됨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의미적인 관점에서의 사역표현의 세분화와 동시에, 사역문과 이와 대응을 이루는 기본문과의 구문적 차이, 즉 양 문장에서 보 여 지는 필수 논항의 증감을 근거로 일본어 사역을 직접사역과 간접사역으로 나누 어 고찰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역에 있어서 사용빈도수 면에서 중핵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지령)」등의 의미·용법을 갖는 사역은 기본문에 비해 논항이 하나 증가한다는 구문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사역으로 분류되고, 이에 반해 사용빈 도수 면에서 주변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원인」등의 의미·용법을 갖는 사역 은 기본문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논항의 증감이 없다는 구문적인 특징에 의해 직

접사역으로 나누어짐을 논하였다.

또 하나의 본고 연구의 중심이 되는 제4장에서는 기본동사의 사역문 성립여부에 관하여 고찰 분석하였다. 사역과 마찬가지로 態의 범주에 속하는 일본어 수동의 경우는, 우리말이나 영어의 경우와 달리, 타동사뿐 만 아니라 자동사에 의해서도 수동이 성립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말에 비해 일본어의 수동은 생산성이 높은 언어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모든 동사에 의해 수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지동사에 한해서 수동이 성립되고, 반대로 무의지동사(이른바 소동사)에 의해서는 수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동의 성립여부와 동사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사역의 경우는 어떠한 유형의 동사에 의해 사역을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유형의 동사의 경우 사역의 성립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를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에 나오는 728개의 동사를 대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수동의 경우와는 달리, 사역은 일부 자동사뿐 만 아니라, 일부 타동사에 의해서도 성립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사역이 성립되지 않는 일부 자동사 및 타동사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 부류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참 고 문 헌

<논문>

青木令子(1977), 『使役一自動詞・他動詞との関わりにおいて一』 『成蹊国文』 vol. 10, 成 蹊大学

日本語文學 韓國日本語文學會

森田良行(1971), 「受身・使役の言い方」, 講座日本語教育, 9

姜鍾南(1996), 「日本語 使役文의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김창남(2006)、「日本語の使役形式について」日語日文學研究

權勝林(1993), 『日·韓使役文の對照研究―再歸性の觀点から―』大阪大學 大學院 言語文化研究科 提出 修士論文

권승림(1997), 「日本語의 直接使役과 間接使役」『日本學報』38

권승림(1999), 「他動詞와 使役性」『日本學報』 第42

권승림(2003), 「일본어와 한국어 사역문의 피사역자에 관한 고찰」한국외국어교육 학회

司令引(2005), 「使役文と再歸性(2) - 意味・用法の分類」語學研究叢書【No. 36】

李吉遠(1995), 「日本語 動詞의 活用에 관한 硏究」日語日文學, 3,

李楨淑、『日本語의 使役表現에 대해서』 日語日文學研究 19

丁意祥(2007), 「現代日本語のヴォイスについて」韓國日語日文學會 第62

千昊載,(2002), 『日本語 使役構文 分析-《非對格自動詞+させる-형의 술어를 중심으로》』

千昊載(2003),「非對格自動詞使役構文の日韓對照」한국일어일문학회

<단행본>

庵 功雄 外(2000),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庵 功雄(2002), 『新しい日本語学入門』,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上』, 大修館書店

小泉 保 外4人(2004),『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 大修館書店

松下大三朗(1930), 「改善標準日本文学」, 東京, 勉誠社

益岡隆志(1987)、『命題の文法-日本語文法序説-』、くろしお出版

三上章(1963)、「日本語の構文」,東京、くろしお出版

宮地裕(1969),「せる・させる<現代語>、松村明編、現代語古典語助詞助動詞詳説」,東京, 学灯社

森田良行(1977), 「基礎日本語 - 意味と使い方」, 角川書店

森田良行(2002),「日本語文法の発想」,ひつじ書房

仁田義雄(1992)、『日本人学を学ぶ人のために』玉村文郎編 世界思想社

定延利之(1991), 「SASEと間接性、仁田義雄編 日本語のプォイスと他動性」,東京、くろしお出版

阪田雪子(1980)、「使役を表わす言い方・せる・させる、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4、東京、 国際交流基金

紫谷方良(1978),「日本語の分析」、東京、大修館

鈴木一彦 · 林 巨樹(1984), 『研究資料日本文法』, 明治書院

玉村文郎(1993), 「日本語学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第一巻』、くろしお出版

吉田金彦(1971), 「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東京,明治書院

楊凱栄(1989)、「日本語と中国語の使役表現に関する対照研究」、東京、くろしお出版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전공	학 번	20058044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이세호	한문 :	李世鎬 영문	: Se-ho, L	ee
주소	광주광역시 동국	₽ 산수1동	542-58번지		
연락처	062) 523-9075 E-MAIL: shjapan98@msn.com				
	한글 : 일본어 /	사역표현의	의미·용법에 관	·하 연구	
논문제목	영문 : A Study on the Semantic Usages of Causative Construction in Japanes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 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1 월 일

저작자 : 이 세 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